

청자골 강진군의 도농교류를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을 다녀와서

배윤정 기자

지난 6월 29일 전남 강진군에선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친환경농업 생산현장을 둘러보는 도농교류 행사가 있었다. 친환경농업군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강진군의 도농교류 첫 번째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농산물은 특산물없이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농업소득 또한 높지 않다. 이에 강진군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내 16개단지 200ha에 친환경농업 쌀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도농교류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사)미래가정문화연합 회원들이며 행사 참석자들은 절반이 주부, 절반은 퇴직자들로써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도시퇴직자도 있고 더러는 농장을 소유하며 농사를 병행하는 이도 있었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틀간의 행사는 친환경농업생산지와 청자도요지, 영랑생가, 다산초당, 무위사, 영랑생가도 관광하고 강진 곳곳의 친환경농업 생산지와 마을주민들과 만남도 가졌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작천면 야흥리의 부흥단지, 이곳은 우렁이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5년째인 재배중인 친환경농업마을이다. 도착하자마자 우렁이 방사체험을 하였다. 참가자들이 바가지 하나가득 우렁이를 담아 눈에 방사하면서 어른들은 아이

처럼 재밌어 했다. 부흥리는 지난 5월 20일까지 모내기를 끝냈지만 우렁이 방사를 위해 논 한 마지기는 늦게 모내기를 한 상태라 모가 아직 어렸다. 다른 논에선 모 줄기에 빨간 덩어리가 맺혀있는 것을 군데군데 찾을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우렁이 알이었다. 일찍 방사된 우렁이가 벌써 알을 까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친환경농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국대 손상목교수(유기농업학과, 아시아 유기농업협회장)의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유기농업이란 유기농 사료를 먹인 가축이 배설한 축분에 벼짚을 섞어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를 논, 밭에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란다. 두 번째로 들른 대월마을(이장 조석재)에선 새송이 농장을 견학하였다. 버섯은 주변환경의 영향에 민감해서 공기 오염이 적고 깨끗한 곳이라야 재배가 가능하며 심지어는 살충제 냄새만 맡아도 약해를 입는다고 한다. 성전느타리작목반 이윤배 씨의 새송이재배사(10동재배)를 주~욱 둘러보며 버섯이 왜 무농약인지 설명을 듣고 나니 주부들이 즉석에서 버섯을 구입하기도 했다. 대월마을은 강진군에서 '늘푸른 마을'로 지정하여 아름다운 농촌가꾸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마을 주민들은 떡과 과일, 음료수를 대접하여 이방인들의 맘을 푸근하게 만들었고 월정각에 모여 서로 담소를 나누며 잠시 오후의 시골 정취에 젖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늘의 행사에 기대가 컸는지 마을회관 앞에 삼삼오



▲ 도시민들에게 친환경농업과 강진군에 대해 소개하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담당자



▲ 강진군 작천면 부흥단지 우렁이농법 재배논에 도시소비자들이 우렁이를 바라보는 모습

오 모여 이방인들을 구경했다. 다음 견학지로 장소를 이동할 즈음 주민들도 서운했던지 자식들 떠나 보내는 듯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모처럼 고향의 정을 가슴에 담고 오는 듯 흐뭇했다. 다음은 강진의 자랑거리인 다산 초당으로 향했다.

초여름에 찾은 곁동마을은 하얗게 만발한 치자꽃 향기로 코마져 황홀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초당은 서당으로 운영되었고 후에 다산을 따르던 후학들의 학문을 정진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세번째 견학장소인 칠량면 친환경농업단지로 향했다. 칠량이란 7가지 어진 것이 있다해서 부른 명칭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도 우렁이농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칠량면의 유기농업 선구자인 김길남 씨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생명사랑본부는 우렁이 쌀 생산과 판매에 모두 성공한 경우였다. 특히 우렁이 사육까지 하고 있었다. 생명사랑본부는 재배기술은 안정된 수준이라 앞으로 면적을 늘릴 생각이다. 현재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서울아파트 몇 군데와 직거래하는데 고객은 200명 정도다. 6.3ha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현재 주문량을 채우지 못해 조만간 12ha까지 넓힐 계획이란다.

강진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쌀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작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계약주문은

하반기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전까지 유기농 쌀과 일반 쌀이 도정단계부터 섞여 유기농 쌀이 차별화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당연히 도정단계부터 분리해서 포장할 것이라 한다. 강진군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있어 쌀도정과 함께 수매된 쌀을 보관하고 있다.

강진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와 너무 멀다보니 농산업 발전이 미약한 지역이다.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라고 표현한 말이 그렇게 적절할 수 없었고 어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말해주기도 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오상동 강진군 농촌지도사는 말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꽃은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뿌리가 건강해야만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다. 전체 인구의 8.6%밖에 안 되는 농촌,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도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친환경농업으로 다시 희생하려는 농촌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농녹색교류는 '우리'라는 공동의 식을 일깨워주고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주도할 수도 있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떠나는 사람보다 보내는 이의 맘이 더 절실했던지 오상동 지도사는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애정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㉞

(편집자주: 위 글은 본협회가 주관한 강진군 친환경농업 도농교류행사에 동행한 프리랜스 배윤정 기자의 글을 요약한 것임)